

**고1국어
신사고**

3(4) 상기 - 지문 분석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출제 유형 베스트]

1. 교술 갈래의 특징을 확인하는 문제
2. 서술상의 특징을 확인하는 문제 : 특히 문답법을 활용한 문제
3. 내용 일치 유형의 문제 : 일반적인 통념과 이를 뒤집는 글쓴이의 사고와 관련된 문제
4. 단어 뜻과 사자성어를 확인하는 문제

[지문 분석]

만일 **진기하고**(진귀하고 기이하고) **괴이하고**(이상야릇하고) 대단하고 어마어마한 것을 볼 **요량**(앞일을 잘 헤아려 생각함. 또는 그런 생각)이면 먼저 **선무문**(宣武門)(중국 베이징 사대문의 하나로 자금성의 남 서쪽에 위치함) 안으로 가서 **코끼리**(진기하고 괴이하고 대단하고 어마어마한 것) 우리를 구경하면 될 것이다. **[내(교술 갈래이므로 글쓴이)매년 교술 갈래의 특징을 활용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가 **연경**(燕京)(중국 베이징[北京]의 옛 이름. 옛날 연나라의 도읍이었음)에서 본 코끼리는 **열여섯 마리**(글쓴이가 중국에서 본 코끼리입니다. 내용 일치 유형에서 선지로 활용되었습니다.)였는데 모두 쇠사슬로 발이 묶여 움직이는 모양을 보지는 못했다. 그런데 지금 **열하**(熱河)(러허. '청더[承德]'의 옛 이름. 청나라 때 황제의 여름 별장이 있었음) **행궁**(行宮)(임금이 나들이 때에 머물던 별궁) 서쪽에서 코끼리 두 마리를 보니, 온몸을 꿈틀거리며 가는 것이 **마치 비바람이 지나가는 듯**(코끼리의 움직임을 직유법을 활용하여 나타냄)(**매년 비유법을 활용했다는 내용을 활용하여 문제로 출제하였습니다.**) 실로 굉장하였다. **[과거와 현재의 경험을 대비하였고, 비유법을 통해 코끼리를 보고 느낀 경이로움을 표현함]**(**'대상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라는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

움직이는 코끼리를 보고 느낀 충격과 경이로움

예전(과거의 경험)에 동해 바닷가를 새벽에 지나가다가 파도 위에 말처럼 서 있는 물체를 본 적이 있다. 무수히 많기도 하고 모두 집체만큼 크기도 하여, 물고기인지 짐승인지 통 알 수가 없었다. 해가 뜨기를 기다렸다가 자세히 보려고 했지만 해가 떠오르기도 전에 모두 바닷속으로 숨어 버렸다. **지금**(현재의 경험)(**과거와 현재의 경험을 연결하면서 대상으로부터 느낀 심정을 부각함**) 열 걸음 거리에서 코끼리를 보며 생각해 보건대, 그때 동해에서 보았던 것과 참으로 흡사했다.

그 몸체(코끼리의 몸체)를 생각해 보면 **소의 몸뚱이에 나귀의 꼬리, 낙타의 무릎에 호랑이의 발, 짧은 털, 회색 빛깔, 어진 모습, 슬픈 소리를 가졌다.**(**코끼리 몸체에 대한 묘사**)(**올해 묘사의 방식을 활용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비유와 묘사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개성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 귀는 구름을 드리운 듯하고 눈은 초승달 같으며, 두 개의 어금니 크기는 두 아름이나 되고 키는 한 **장**(丈)(**길이의 단위. 한 장은 약 3미터에 해당함**) 남짓이나 되었다. 코는 어금니보다 길어서 자벌레처럼 구부러졌다 폼다 하며 굼벵이처럼 구부러지기도 한다. 코끝은 누에의 끝부분처럼 생겼는데 거기에 족집게처럼 물건을 끼워서 돌돌 말아 입에 집어넣는다.

코끼리에 대한 상세한 묘사

어떤 사람(코끼리에 대한 엉뚱한 오해를 한 사람)(**매년 글쓴이와 상반된 입장과 관련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은 코를 부리라고 착각하고 다시 코끼리의 코를 찾는데, 코가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는 생각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코끼리의 다리가 다섯 개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코끼리 눈이 쥐와 같다고 하지만, 이는 대개 코와 어금니 사이에만 관심을 집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몸뚱이를 통틀어 가장 작은 놈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엉뚱한 오해가 생기는 것이다.**(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사람들이 사물이 일부만 보고 선부르게 잘못된 판단을 한 것)(올해 해당 오류와 관련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작가는 상대방의 주장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음을 지적한다.'라는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 대체로 코끼리 눈은 매우 가늘어서 마치 간사한 사람이 **아양(귀염을 받으려고 알랑거리는 말. 또는 그런 짓)**(매년 단어 뜻을 확인하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을 떨 때 눈이 먼저 웃는 것처럼 보인다. (코끼리 눈에 대한 일반 사람들의 입장 : 부정적) 그러나 그 어진 성품은 바로 이 눈에서 나온다. (코끼리 눈에 대한 글쓴이의 입장 : 긍정적)(동일한 대상에 대한 상반된 태도)

코끼리에 대한 엉뚱한 오해

강희 황제(중국 청나라의 제4대 황제) 때였다. 남해자(南海子)(중국 베이징 송문문(崇文門) 남쪽에 있는 동물원)에 사나운 범(호랑이) 두 마리가 있었다. [키운 지 오래되었는데도 길(짐승 따위를 잘 가르쳐서 부리기 좋게 된 버릇)을 들이기가 어렵자 황제가 노하여 범을 코끼리 우리에 가두게 했다.]('강희 황제는 범을 길들이기 위해 코끼리 우리에 넣었다.'라는 옳지 않은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코끼리가 크게 놀라 코를 한 번 휘두르는 바람에 범 두 마리가 그 자리에서 죽었다고 한다. 코끼리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범을 죽인 셈이 된 것이다. **코끼리는 단지 범의 냄새를 싫어하여 코를 휘둘렀을 뿐인데, 거기에 범이 잘못 맞았던 것이다.**(코끼리가 범을 죽인 것은 의도적인 것이 아님)(코끼리가 범을 죽인 것은 우연한 일이었다.'라는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

코끼리의 코와 관련된 일화

아, **사람들은 세상의 사물 중에 터럭만 한 작은 것이라도 하늘에서 그 근거를 찾는다.**(통념 : 하늘의 이치에 관한 보편적 인식)(사람들의 통념과 관련된 문제가 매년 출제되었습니다.)('사람들은 하늘이 사물을 만들 때 나름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이 어찌 하나하나 이름을 지었겠는가?**(통념에 대한 글쓴이의 의문) 형체로 말하자면 천(天)이요, **성정(性情)(성질과 심정. 또는 타고난 본성)으로 말하자면 건(乾)이며, 주재(主宰)하는(어떤 일을 중심이 되어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말하자면 상제(上帝)(하느님)요, 오묘한 작용으로 말하자면 신(神)이라 하니, 그 이름도 다양하고 일컫는 것도 제각기이다. 또 이(理)(만물의 이치, 원리, 질서. 특히 성리학에서는 사물의 질료적 측면을 기(氣)라 하고 원리적 측면을 이(理)라 함)와 기(氣)(만물 생성의 근원이 되는 힘. 이(理)에 대응되는 것으로 물질적인 바탕을 이룸)를 화로(숯불을 담아 놓는 그릇)와 풀무(불을 피울 때에 바람을 일으키는 기구)로 삼고, 만물을 두루 퍼내는 것을 조물이라고 하니, 이는 하늘을 마치 솜씨 좋은 장인으로 보고서 그가 망치와 끌, 도끼와 칼 등으로 조금도 쉬지 않고 일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만물이 하늘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는 것)

모든 사물의 근거를 하늘에서 찾는 사람들의 인식

그런 까닭에 "**주역(周易)(유학 오경(五經)의 하나)**"에 이르기를 "**하늘이 혼돈에서 만물을 만들었다.**"라고 하였다.(주역의 일부를 직접 인용) **혼돈이란 그 빛이 검고 그 모양은 흠비가 내리는 듯하여, 비유를 하자면 새벽이 되었지만 아직 동이 트지는 않은 때에 사람이나 사물이 분별되지 않는 상태와 같다.**(주역에서 말하는 혼돈) 나는 알지 못하겠다. **캄캄하고 흠비 자욱한 속에서 하늘이 과연 어떤 물건을 만들어 냈을까.**(혼돈 상태에서 하늘이 만물을 만들었다는 것에 대한 의문)('작가는 혼돈 상태에서 하늘이 만물을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 비판적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라는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 **국숫집에서 보리를 갈면 작거나 크거나 가늘거나 굵거나 할 것 없이 뒤섞여 바닥에 쏟아진다.**(비유적 표현) **무릇 맷돌의 작용(하늘의 작용)이란 도는 것일 뿐이니, 가루가 가늘거나 굵거나 무슨 의도가 있었겠는가.**(설의법)(의도가 없이 우연히 만들어진 것)(글쓴이의 입장을 확인하는 문제가 매년 출제되었습니다.)('맷돌로 보리를 갈 때 보릿가루의 굵기가 다른 것은 하늘의 의도나 이치와 무관한 일이다.'라는 선지로 출제되었습

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뿔이 있는 것에게는 뿔니를 주지 않는다.”(하늘이 만물을 만들 때 나름의 의도가 반영되었다는 생각)라고 말한다. 이는 마치 사물을 만들면서 빠뜨린 게 있는 듯 여기는 것이니, 잘못된 생각이다.

만물이 하늘의 의도에 따라 만들어졌다는 생각에 대한 비판

감히 묻는다.(문답법)(매년 서술상의 특징을 확인하는 문제로 출제되었습니다.)

“이빨을 준 건 누구인가?”(질문①)

사람들은 대답하리라.

“하늘이 주었다.”(대답①)

다시 묻는다.

“하늘이 무엇 때문에 이빨을 주었을까?”(질문②)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하리라.

“씹게 하려는 것이다.”(대답②)

다시 이렇게 물어보자.

“사물을 씹도록 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질문③)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하리라.

“그게 바로 ‘이치’입니다.(하늘의 의도가 반영된 것) 새나 짐승들은 손이 없으므로 반드시 부리나 주둥이를 구부려 땅에 대고 먹을 것을 구하지요. 그러므로 학과 같이 다리가 긴 새는 목을 길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도 혹 땅에 닿지 않을까 염려하여 부리를 길게 만들었습니다. 만일 닭의 다리를 학의 다리처럼 길게 만들었다면 뜨락에서 굶어 죽었을 겁니다.”(대답③)

나는 크게 웃으면서 다시 말하리라.

“그대들이 말하는 ‘이치’란 것은 소, 말, 닭, 개에게나 해당할 뿐이다.(작가의 생각 : 모든 사물에 동일한 이치를 적용할 수 없음) 하늘이 이빨을 내린 것이 반드시 구부려서 사물을 씹도록 한 것이라 해보자. 그러면 지금 저 코끼리에게는 쓸데없는 어금니를 심어 주어 땅으로 고개를 숙이면 어금니가 먼저 닿는다. 이런 모습은 오히려 씹는 것에 방해가 되는 게 아닌가?(사람들의 주장에 대한 반박)”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것은 코가 있기 때문이다.”(예상 반박)

그러면 나는 이렇게 말하리라.

“긴 어금니를 주고서 코를 핑계로 댈 양이면, 차라리 어금니를 없애고 코를 짧게 하는 게 낫지 않은가?”(글쓴이의 재반박)(반문의 형식을 통해 ‘사람들’의 주장이 불합리한 것임을 밝힘)(서술상의 특징을 확인하는 문제에서 매년 출제되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우기지 못하고 슬며시 굴복하고 만다.

모든 사물에 하늘의 의도가 반영되어 있다는 주장에 대한 논리적 반박

우리가 배운 것으로는 생각이 소, 말, 닭, 개(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것들)에게 미칠 뿐, 용, 봉, 거북, 기린(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없는 것들) 같은 짐승에게까지는 미치지 못한다. 코끼리가 범을 만나면 코로 때려 죽이니 그 코야말로 천하무적이다. 그러나 쥐를 만나면 코를 돌 데가 없어서 하늘을 우려러 멍하니 서 있을 뿐이다. 그렇다고 쥐가 범보다 무서운 존재라 말한다면 조금 전에 말한바 이치가 아니다.(코끼리가 범과 쥐를 만났을 때의 상황을 대비한 것으로 고정된 관점으로 대상이나 현상을 인식하는 것의 불합리성을 지적)(‘작가는 모든 사물에 동일한 이치를 적용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

고정된 시각으로 대상을 판단할 때의 오류

대저 코끼리는 오히려 눈에 보이는 것인데도 그 이치를 모르는 것이 이와 같다. 하물며 천하 사물이 코끼리보다도 만 배나 더한 것임에랴. (천하 사물에는 우리가 모르는 것이 무수히 많음) 그러므로 성인이 “주역”을 지을 때 ‘코끼리 상(象)’ 자를 취하여 지은 것도 만물의 변화를 궁구(窮究)하려는 까닭이었으리라. (다양한 관점에서 만물에 대해 인식하고 탐구하려는 까닭)

고정된 관점에서 벗어나 대상을 인식해야 하는 이유

고1국어
신사고

3(4) 상기 - 지문 확인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지문 확인]

만일 **진기하고(진귀하고 _____) 괴이하고(_____)** 대단하고 어마어마한 것을 볼 **요량(앞일을 잘 헤아려 생각함. 또는 그런 생각)**이면 먼저 **선무문(宣武門)(중국 베이징 사대문의 하나로 자금성의 남 _____에 위치함)** 안으로 가서 **코끼리(_____ 괴이하고 대단하고 어마어마한 것)** 우리를 구경하면 될 것이다. **[내(_____ 이므로 글쓴이)(매년 _____ 갈래의 특징을 활용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가 연경(燕京)(중국 베이징[北京]의 옛 이름. 옛날 연나라의 도읍이었음)에서 본 코끼리는 열여섯 마리(글쓴이가 중국에서 본 코끼리입니다. 내용 일치 유형에서 _____로 활용되었습니다.)**였는데 모두 쇠사슬로 발이 묶여 움직이는 모양을 보지는 못했다. 그런데 지금 **열하(熱河)(러허. '청더[承德]'의 옛 이름. 청나라 때 황제의 여름 _____이 있었음) 행궁(行宮)(_____이 나들이 때에 머물던 별궁)** 서쪽에서 코끼리 두 마리를 보니, 온몸을 꿈틀거리며 가는 것이 **마치 비바람이 지나가는 듯(코끼리의 움직임을 직유법을 활용하여 나타냄)(매년 비유법을 활용했다는 _____을 활용하여 문제로 출제하였습니다.)** 실로 굉장하였다. **](과거와 현재의 경험을 대비하였고, 비유법을 통해 코끼리를 보고 느낀 경이로움을 표현함)(‘대상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라는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

_____ 코끼리를 보고 느낀 충격과 _____

예전(_____의 경험)에 동해 바닷가를 새벽에 지나가다가 파도 위에 말처럼 서 있는 물체를 본 적이 있다. 무수히 많기도 하고 모두 집채만큼 크기도 하여, 물고기인지 짐승인지 통 알 수가 없었다. 해가 뜨기를 기다렸다가 자세히 보려고 했지만 해가 떠오르기도 전에 모두 바닷속으로 숨어 버렸다. **지금(_____의 경험)(과거와 _____의 경험을 연결하면서 대상으로부터 느낀 _____을 부각함)** 열 걸음 거리에서 코끼리를 보며 생각해 보건대, 그때 동해에서 보았던 것과 참으로 흡사했다.

그 몸체(_____의 몸체)를 생각해 보면 **소의 몸뚱이에 나귀의 꼬리, 낙타의 무릎에 호랑이의 발, 짧은 털, 회색 빛깔, 어진 모습, 슬픈 소리를 가졌다.(코끼리 몸체에 대한 _____)(올해 묘사의 방식을 활용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비유와 _____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를 _____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 귀는 구름을 드리운 듯하고 눈은 초승달 같으며, 두 개의 어금니 크기는 두 아름이나 되고 키는 한 **장(丈)(_____의 단위. 한 장은 약 3미터에 해당함)** 남짓이나 되었다. 코는 어금니보다 길어서 자벌레처럼 구부러졌다 폼다 하며 굼벵이처럼 구부러지기도 한다. 코끝은 누에의 끝부분처럼 생겼는데 거기에 죽집게처럼 물건을 끼워서 둘둘 말아 입에 집어넣는다.

_____ 코끼리에 대한 상세한 _____

어떤 사람(코끼리에 대한 엉뚱한 _____를 한 사람)(매년 글쓴이와 _____ 입장과 관련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은 코를 부리라고 착각하고 다시 코끼리의 코를 찾는데, 코가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코끼리의 다리가 다섯 개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코끼리 눈이 쥐와 같다고 하지만, 이는 대개 코와 어금니 사이에만 관심을 집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몸뚱이를 통틀어 가장 작은 놈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엉뚱한 오해가 생기는 것이다.(_____ 일반화의 오류)(사람들이 사물이 일부분만 보고 선부르게 잘못된 판단을 한 것)(올해 해당 _____와 관련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작가는 상대방의 주장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음을 지적한다.’라는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 대체로 코끼리 눈은 매우 가늘어서 마치 간사한 사람이 **아양(_____을 받으려고 알랑거리는 말. 또**

는 그런 짓)(**매년 단어 뜻을 확인하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을 떨 때 눈이 먼저 웃는 것처럼 보인다. (코끼리 눈에 대한 일반 사람들의 입장 : 부정적) **그러나 그 어진 성품은 바로 이 눈에서 나온다.**(코끼리 눈에 대한 글쓴이의 입장 : _____)(동일한 _____에 대한 상반된 태도)

코끼리에 대한 엉뚱한 _____

강희 황제(중국 청나라의 제4대 _____) 때였다. **남해자(南海子)**(중국 베이징 송문문(崇文門) 남쪽에 있는 동물원)에 사나운 **범**(_____) 두 마리가 있었다. [키운 지 오래되었는데도 **길**(____ 따위를 잘 가르쳐서 부리기 좋게 된 _____)을 들이기가 어렵자 황제가 노하여 범을 코끼리 우리에 가두게 했다.](**‘강희 황제는 범을 길들이기 위해 코끼리 _____에 넣었다.’라는 옳지 않은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코끼리가 크게 놀라 코를 한 번 휘두르는 바람에 범 두 마리가 그 자리에서 죽었다고 한다. 코끼리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범을 죽인 셈이 된 것이다. **코끼리는 단지 범의 냄새를 싫어하여 코를 휘둘렀을 뿐인데, 거기에 범이 잘못 맞았던 것이다.**(코끼리가 범을 죽인 것은 _____인 것이 아님)(**‘코끼리가 범을 죽인 것은 우연한 일이었다.’라는 _____로 출제되었습니다.**)

_____의 코와 관련된 일화

아, **사람들은 세상의 사물 중에 터럭만 한 작은 것이라도 하늘에서 그 근거를 찾는다.**(**통념 : 하늘의 이치에 관한 _____인식**)(**사람들의 _____과 관련된 문제가 매년 출제되었습니다.**)(**‘사람들은 하늘이 사물을 만들 때 나뭇 _____를 가지고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이 어찌 하나하나 이름을 지었겠는가?**(_____에 대한 글쓴이의 의문) 형체로 말하자면 천(天)이요, **성정(性情)**(성질과 심정. 또는 타고난 _____)으로 말하자면 건(乾)이며, **주재(主宰)하는(어떤 _____을 중심이 되어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말하자면 **상제(上帝)**(하느님)요, 오묘한 작용으로 말하자면 신(神)이라 하니, 그 이름도 다양하고 일컫는 것도 제각기이다. 또 **이(理)**(만물의 이치, 원리, _____, 특히 성리학에서는 사물의 질료적 측면을 기(氣)라 하고 _____측면을 이(理)라 함)와 **기(氣)**(만물 생성의 _____이 되는 힘. 이(理)에 대응되는 것으로 _____바탕을 이룸)를 **화로**(숯불을 담아 놓는 _____)와 **풀무**(_____을 피울 때에 바람을 일으키는 _____)로 삼고, 만물을 두루 퍼내는 것을 조물이라고 하니, 이는 **하늘을 마치 솜씨 좋은 장인으로 보고서 그가 망치와 끌, 도끼와 칼 등으로 조금도 쉬지 않고 일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만물이 하늘에 의해 _____ 생각하는 것**)

모든 _____의 근거를 하늘에서 찾는 사람들의 인식

그런 까닭에 “**주역(周易)**(유학 _____(五經)의 하나)”에 이르기를 “**하늘이 혼돈에서 만물을 만들었다.**”라고 하였다.(**주역의 일부를 _____인용**) 혼돈이란 그 빛이 검고 그 모양은 흠비가 내리는 듯하여, 비유를 하자면 새벽이 되었지만 아직 동이 트지는 않은 때에 사람이나 사물이 분별되지 않는 상태와 같다.(**주역에서 말하는 _____) 나는 알지 못하겠다. 캄캄하고 흠비 자욱한 속에서 하늘이 과연 어떤 물건을 만들어 냈을까.**(_____상태에서 하늘이 만물을 만들었다는 것에 대한 의문)(**‘작가는 _____상태에서 하늘이 만물을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 비판적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라는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 **국숫집에서 보리를 갈면 작거나 크거나 가늘거나 굵거나 할 것 없이 뒤섞여 바닥에 쏟아진다.**(_____표현) **무릇 맷돌의 작용(하늘의 _____)이란 도는 것일 뿐이니, 가루가 가늘거나 굵거나 무슨 의도가 있었겠는가.**(_____)(**의도가 없이 _____만들어진 것**)(**글쓴이의 입장을 확인하는 문제가 매년 출제되었습니다.**)(**‘_____로 보리를 갈 때 보릿가루의 굵기가 다른 것은 하늘의 의도나 이치와 무관한 일이다.’라는 선지로 _____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뿔이 있는 것에게는 뿔니를 주지 않는다.**”(하늘이 만물을 만들 때 나뭇 _____의 의도가 반영되었다는 _____)라고 말한다. 이는 마치 사물을 만들면서 빠뜨린 게 있는 듯 여기는 것이니, 잘못된 생각이다.

_____이 하늘의 의도에 따라 만들어졌다는 생각에 대한 비판

감히 묻는다.(_____)(**매년 서술상의 특징을 확인하는 _____로 출제되었습니다.**)

“이빨을 준 건 누구인가?”(____ ①)

사람들은 대답하리라.

“하늘이 주었다.”(____ ①)

다시 묻는다.

“하늘이 무엇 때문에 이빨을 주었을까?”(____ ②)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하리라.

“씹게 하려는 것이다.”(____ ②)

다시 이렇게 물어보자.

“사물을 씹도록 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____ ③)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하리라.

“그게 바로 ‘이치’입니다.(하늘의 ____가 반영된 것) 새나 짐승들은 손이 없으므로 반드시 부리나 주둥이를 구부려 땅에 대고 먹을 것을 구하지요. 그러므로 학과 같이 다리가 긴 새는 목을 길게 만들 수 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도 혹 땅에 닿지 않을까 염려하여 부리를 길게 만들었습니다. 만일 닭의 다리를 학의 다리처럼 길게 만들었다면 트락에서 굶어 죽었을 겁니다.”(____ ③)

나는 크게 웃으면서 다시 말하리라.

“그대들이 말하는 ‘이치’란 것은 소, 말, 닭, 개에게나 해당할 뿐이다.(작가의 ____ : 모든 사물에 동일한 이치를 적용할 수 없음) 하늘이 이빨을 내린 것이 반드시 구부려서 사물을 씹도록 한 것이라 해보자. 그러면 지금 저 코끼리에게는 쓸데없는 어금니를 심어 주어 땅으로 고개를 숙이면 어금니가 먼저 닿는다. 이런 모습은 오히려 씹는 것에 방해가 되는 게 아닌가?(사람들의 주장에 대한 ____)”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것은 코가 있기 때문이다.”(예상 ____)

그러면 나는 이렇게 말하리라.

“긴 어금니를 주고서 코를 핑계로 댈 양이면, 차라리 어금니를 없애고 코를 짧게 하는 게 낫지 않은가?”(글쓴이의 ____)(____의 형식을 통해 ‘사람들’의 ____이 불합리한 것임을 밝힘)(**서술상의 특징을 확인하는 ____에서 매년 출제되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우기지 못하고 슬며시 굴복하고 만다.

모든 ____에 하늘의 의도가 반영되어 있다는 주장에 대한 논리적 반박

우리가 배운 것으로는 생각이 소, 말, 닭, 개(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____)에게 미칠 뿐, 용, 봉, 거북, 기린(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____ 것들) 같은 짐승에게까지는 미치지 못한다. 코끼리가 범을 만나면 코로 때려 죽이니 그 코야말로 천하무적이다. 그러나 쥐를 만나면 코를 돌 데가 없어서 하늘을 우려러 멍하니 서 있을 뿐이다. 그렇다고 쥐가 범보다 무서운 존재라 말한다면 조금 전에 말한바 이치가 아니다.(____가 범과 쥐를 만났을 때의 상황을 대비한 것으로 고정된 관점으로 대상이나 현상을 인식하는 것의 불합리성을 지적)(‘작가는 모든 ____에 동일한 ____를 적용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

고정된 시각으로 대상을 판단할 때의 오류

대저 코끼리는 오히려 눈에 보이는 것인데도 그 이치를 모르는 것이 이와 같다. 하물며 천하 사물이 코끼리보다도 만 배나 더한 것임에랴.(천하 사물에는 우리가 모르는 것이 무수히 ____) 그러므로 성인이 “주역”을 지을 때 ‘코끼리 상(象)’ 자를 취하여 지은 것도 만물의 변화를 궁구(窮究)하려는 까닭이었으리라.(다양한 관점에서 만물에 대해 인식하고 탐구하려는 ____)

고정된 ____에서 벗어나 대상을 인식해야 하는 ____

**고1국어
신사고**

3(4) 상기 - 내신 암기 문제 암기용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1. 제재 개관

갈래	고전 수필 , 기
성격	묘사적 , 비유적 , 교훈적
제재	코끼리를 본 경험
주제	확일적 이치 로 만물을 바라보는 고정 관념 의 경계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가의 경험을 바탕으로 통념을 깨는 철학적 진리를 전달함. • 비유와 묘사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개성적으로 표현함. • 문답법을 사용하여 작가의 주장이 타당함을 논리적으로 입증함. • 논리적인 근거를 들어 사회 통념을 반박하고 있음.

2. 전체 구성

기	움직이는 코끼리 를 보았을 때 느낀 충격과 경이로움
승	코끼리의 외양 에 대한 자세한 묘사
전	하늘의 이치 에 관한 통념 에 대한 논리적 반박과 입증
결	고정된 관점에서 대상 을 인식하는 것의 위험성

3. 코끼리에 대한 새로운 관점

보편적 인식(부정적 관점)
코끼리 눈은 매우 가늘어서 마치 간사 한 사람이 아양 을 떨 때 눈이 먼저 웃는 것처럼 보임.



새로운 인식(긍정적 관점)
코끼리의 어진 성품 이 바로 눈에서 나옴.

4. 문답의 구성

사람들
하늘이 이빨을 준 것은 구부러서 사물 을 씹도록 한 것임.



작가
코끼리는 땅으로 고개를 숙이면 어금니 가 먼저 닿아 씹는 것에 방해가 됨.



사람들
코끼리에게 어금니 를 준 것은 코가 있기 때문.



작가
차라리 어금니 를 없애고 코를 짧게 하는 것이 나옴.

5. 꼬끼리를 본 경험을 통한 깨달음

당시 사회의 보편적인 생각
하늘의 이치를 **절대화**하여 인간의 행동 양식과 자연 현상 모두를 하늘의 **이치**와 **결부**시킴.



열하 행궁 서쪽에서 꼬끼리를 봄.
움직이는 꼬끼리를 처음 보고 **충격**과 **경이**로 **움**을 느낌.

꼬끼리의 눈에 대한 새로운 인식
세상 사람들은 꼬끼리의 눈을 **간사**한 웃음으로 인식하는 반면 글쓴이는 꼬끼리의 눈에서 **어진** 성품이 나온다고 생각함.

꼬끼리가 범을 죽인 일이 발생함.
꼬끼리가 코를 휘둘러 범을 죽인 것은 **우연**한 일에 불과함.



깨달음
모든 것을 하늘의 **이치**와 **결부**시켜 이해하는 당시의 **획일적** 시각을 경계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만물을 바라봐야 한다는 점을 깨달음.

6. 작가가 성찰한 것과 의의

- **성찰**한 것 : 하늘의 **이치**를 **절대화**하여 모든 것을 하늘의 이치와 **결부**시키는 당대의 **획일적** 사고방식에 대해 성찰하고 있다.
- **의의** : 작가의 **성찰**은 당대의 지배적 통념에서 벗어나는 **사고방식**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7. 당대 사람들의 생각과 작가의 반박

당대 사람들의 생각	작가의 반박
하늘 을 숨씨 좋은 장인으로 보고서, 그가 모든 것을 만들었다고 생각함.	캄캄 하고 흠비 자욱한 속에서 하늘 이 어떤 것을 만들어 냈는지 알 수 없음.
하늘이 이빨 을 준 것은 고개를 숙여 사물 을 씹도록 한 것임.	꼬끼리 는 땅으로 고개를 숙이면 어금니 가 먼저 달아 씹는 것에 방해가 되므로, 사람들이 말하는 하늘의 이치 는 꼬끼리 에게 적용되지 않음.

8. 고정된 시각으로 대상을 판단하였을 때의 오류

꼬끼리는 크고 사나운 **뱀**보다 작고 **보잘것없**은 쥐를 더 꺼려 함. → 쥐가 뱀보다 무서운 존재라는 것은 일반적인 **통념**에서의 이치와 맞지 않음. → **고정된** 관점으로 대상이나 현상을 인식하는 것은 **불합리**함.

9. '하물며 천하 사물이 꼬끼리보다도 만 배나 더한 것임에랴.'의 의미

'눈에 보이는 **꼬끼리**에 대해서도 그 **이치**를 모르는 것이 있는데, 천하 **사물**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겠는가'라는 말로, 천하 사물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수히 많다는 의미이다.

10. 코끼리 코에 대한 일화를 제시한 이유

우연히 일어난, 코끼리 코에 관한 일화를 제
시함. → 이후 앞의 본질에 관한 논의를 시작
함.

11. '맷돌'이 비유하고 있는 것

'맷돌의 작용'은 만물을 만들어 내는 '하늘의
작용'을 비유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맷돌'의
원관념은 '하늘'이라고 할 수 있다.

**고1국어
신사고**

3(4) 상기 - 내신암기 문제 TEST 1단계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1. 제재 개관

갈래	고전 수□, 기
성격	묘□□, 비□□, 교□□
제재	코끼리를 본 경□
주제	획일적 이□로 만물을 바라보는 고정 □□의 경계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가의 경험을 바탕으로 통□을 깨는 철학적 진□를 전달함. • 비□와 묘□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개성적으로 표현함. • 문□□을 사용하여 작가의 주장이 타당함을 논리적으로 입증함. • 논리적인 근거를 들어 사회 통□을 반박하고 있음.

2. 전체 구성

기	움직이는 코□□를 보았을 때 느낀 충격과 경이로움
승	코끼리의 외□에 대한 자세한 묘사
전	하늘의 이□에 관한 통□에 대한 논리적 반박과 입증
결	고정된 관점에서 대□을 인식하는 것의 위험성

3. 코끼리에 대한 새로운 관점

보편적 인식(부정적 관점)
코끼리 눈은 매우 가늘어서 마치 간□한 사람이 아□을 떨 때 눈이 먼저 웃는 것처럼 보임.



새로운 인식(긍정적 관점)
코끼리의 어진 성□이 바로 눈에서 나옴.

4. 문답의 구성

사람들
하늘이 이빨을 준 것은 구부려서 사□을 씹도록 한 것임.



작가
코끼리는 땅으로 고개를 숙이면 어□□가 먼저 닿아 씹는 것에 방해가 됨.



사람들
코끼리에게 어□□를 준 것은 코가 있기 때문.



작가
차라리 어□□를 없애고 코를 짧게 하는 것이 나옴.

5. 꼬끼리를 본 경험을 통한 깨달음

당시 사회의 보편적인 생각

하늘의 이치를 절□□하여 인간의 행동 양식과 자연 현상 모두를 하늘의 이□와 결□시킴.



열하 행궁 서쪽에서 꼬끼리를 봄.

움직이는 꼬끼리를 처음 보고 충□과 경이□□ □ 느낌.

꼬끼리의 눈에 대한 새로운 인식

세상 사람들은 꼬끼리의 눈을 간□한 웃음으로 인식하는 반면 글쓴이는 꼬끼리의 눈에서 어□ 성품이 나온다고 생각함.

꼬끼리가 범을 죽인 일이 발생함.

꼬끼리가 코를 휘둘러 범을 죽인 것은 우□□ 일에 불과함.



깨달음

모든 것을 하늘의 이□와 결□시켜 이해하는 당시의 획□□ 시각을 경계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만물을 바라봐야 한다는 점을 깨달음.

6. 작가가 성찰한 것과 의의

- 찰한 것 : 하늘의 □치를 □대화하여 모든 것을 하늘의 이치와 □부시키는 당대의 획일적인 사고방식에 대해 성찰하고 있다.
- 의 : 작가의 □찰은 당대의 지배적 통념에서 벗어나는 □고방식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7. 당대 사람들의 생각과 작가의 반박

당대 사람들의 생각	작가의 반박
□늘을 숨씨 좋은 장인으로 보고서, 그가 모든 것을 만들었다고 생각함.	□감하고 흠비 자욱한 속에서 □늘이 어떤 것을 만들어 냈는지 알 수 없음.
하늘이 □빨을 준 것은 고개를 숙여 □물을 씹도록 한 것임.	□끼리는 땅으로 고개를 숙이면 □금이 먼저 달아 씹는 것에 방해가 되므로, 사람들이 말하는 □늘의 □치는 □리에게 적용되지 않음.

8. 고정된 시각으로 대상을 판단하였을 때의 오류

꼬끼리는 크고 사나운 □보다 작고 □□것없는 쥐를 더 꺼려 함. → 쥐가 범보다 무서운 존재라는 것은 일반적인 □념에서의 이치와 맞지 않음. → □정된 관점으로 대상이나 현상을 인식하는 것은 □합리함.

9. '하물며 천하 사물이 꼬끼리보다도 만 배나 더한 것임에랴.'의 의미

'눈에 보이는 □끼리에 대해서도 그 □치를 모르는 것이 있는데, 천하 □물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겠는가'라는 말로, 천하 사물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수히 많다는 의미이다.

10. 코끼리 코에 대한 일화를 제시한 이유

우연히 일어난, 코끼리 코에 관한 □화를 제시함. → 이후 앞의 □질에 관한 □의를 시작함.

11. '맷돌'이 비유하고 있는 것

'맷돌의 □용'은 □물을 만들어 내는 '□늘의 작용'을 비유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맷돌'의 원관념은 '□늘'이라고 할 수 있다.

**고1국어
신사고**

3(4) 상기 - 내신암기 문제 TEST 2단계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1. 제재 개관

갈래	고전 □□, 기
성격	□□□, □□□, □□□
제재	코끼리를 본 □□
주제	획일적 □□로 만물을 바라보는 □□□ □□의 경계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가의 경험을 바탕으로 □□을 깨는 철학적 □□를 전달함. • □□와 □□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개성적으로 표현함. • □□□을 사용하여 작가의 주장이 타당함을 논리적으로 입증함. • 논리적인 근거를 들어 사회 □□을 반박하고 있음.

2. 전체 구성

기	움직이는 □□□를 보았을 때 느낀 충격과 경이로움
승	코끼리의 □□에 대한 자세한 묘사
전	하늘의 □□에 관한 □□에 대한 논리적 반박과 입증
결	고정된 관점에서 □□을 인식하는 것의 위험성

3. 코끼리에 대한 새로운 관점

보편적 인식(부정적 관점)
코끼리 눈은 매우 가늘어서 마치 □□한 사람이 □□을 떨 때 눈이 먼저 웃는 것처럼 보임.



새로운 인식(긍정적 관점)
코끼리의 어진 □□이 바로 눈에서 나옴.

4. 문답의 구성

사람들
하늘이 이빨을 준 것은 구부러서 □□을 씹도록 한 것임.



작가
코끼리는 땅으로 고개를 숙이면 □□□가 먼저 닿아 씹는 것에 방해가 됨.



사람들
코끼리에게 □□□를 준 것은 코가 있기 때문.



작가
차라리 □□□를 없애고 코를 짧게 하는 것이 나옴.

5. 꼬끼리를 본 경험을 통한 깨달음

당시 사회의 보편적인 생각

하늘의 이치를 □□□하여 인간의 행동 양식과 자연 현상 모두를 하늘의 □□와 □□시킴.



열하 행궁 서쪽에서 꼬끼리를 봄.

움직이는 꼬끼리를 처음 보고 □□과 □□□□ □ 느낌.

꼬끼리의 눈에 대한 새로운 인식

세상 사람들은 꼬끼리의 눈을 □□한 웃음으로 인식하는 반면 글쓴이는 꼬끼리의 눈에서 □□ 성품이 나온다고 생각함.

꼬끼리가 범을 죽인 일이 발생함.

꼬끼리가 코를 휘둘러 범을 죽인 것은 □□□□ 일에 불과함.



깨달음

모든 것을 하늘의 □□와 □□시켜 이해하는 당시의 □□□ 시각을 경계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만물을 바라봐야 한다는 점을 깨달음.

6. 작가가 성찰한 것과 의의

- □□한 것 : 하늘의 □□를 □□□□하여 모든 것을 하늘의 이치와 □□□□□□ 당대의 획일적인 사고방식에 대해 성찰하고 있다.
- □□ : 작가의 □□은 당대의 지배적 통념에서 벗어나는 □□□□□□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7. 당대 사람들의 생각과 작가의 반박

당대 사람들의 생각	작가의 반박
□□을 숨씨 좋은 장인으로 보고서, 그가 모든 것을 만들었다고 생각함.	□□□□ 흙비 자욱한 속에서 □□이 어떤 것을 만들어 냈는지 알 수 없음.
하늘이 □□을 준 것은 고개를 숙여 □□을 씹도록 한 것임.	□□□□는 땅으로 고개를 숙이면 □□□□가 먼저 달아 씹는 것에 방해가 되므로, 사람들이 말하는 □□의 □□는 □□□□에게 적용되지 않음.

8. 고정된 시각으로 대상을 판단하였을 때의 오류

꼬끼리는 크고 사나운 □□보다 작고 □□□□□□ 쥐를 더 꺼려 함. → 쥐가 범보다 무서운 존재라는 것은 일반적인 □□에서의 이치와 맞지 않음. → □□□□ 관점으로 대상이나 현상을 인식하는 것은 □□□□□.

9. '하물며 천하 사물이 꼬끼리보다도 만 배나 더한 것임에랴.'의 의미

'눈에 보이는 □□□□에 대해서도 그 □□를 모르는 것이 있는데, 천하 □□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겠는가'라는 말로, 천하 사물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수히 많다는 의미이다.

10. 코끼리 코에 대한 일화를 제시한 이유

우연히 일어난, 코끼리 코에 관한 □□를 제시함. → 이후 앞의 □□에 관한 □□를 시작함.

11. '맷돌'이 비유하고 있는 것

'맷돌의 □□'은 □□을 만들어 내는 '□□의 작용'을 비유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맷돌'의 원 관념은 '□□'이라고 할 수 있다.

**고1국어
신사고**

3(4) 상기 - 내신암기 문제 TEST 3단계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1. 제재 개관

갈래	고전 ____, 기
성격	____, _____, _____
제재	코끼리를 본 ____
주제	획일적 ____로 만물을 바라보는 ____ __의 경계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가의 경험을 바탕으로 ____을 깨는 철학적 ____를 전달함. • ____와 ____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개성적으로 표현함. • ____을 사용하여 작가의 주장이 타당함을 논리적으로 입증함. • 논리적인 근거를 들어 사회 ____을 반박하고 있음.

2. 전체 구성

기	움직이는 ____를 보았을 때 느낀 충격과 경이로움
승	코끼리의 ____에 대한 자세한 묘사
전	하늘의 ____에 관한 ____에 대한 논리적 반박과 입증
결	고정된 관점에서 ____을 인식하는 것의 위험성

3. 코끼리에 대한 새로운 관점

보편적 인식(부정적 관점)
코끼리 눈은 매우 가늘어서 마치 ____한 사람이 ____을 떨 때 눈이 먼저 웃는 것처럼 보임.



새로운 인식(긍정적 관점)
코끼리의 어진 ____이 바로 눈에서 나옴.

4. 문답의 구성

사람들
하늘이 이빨을 준 것은 구부러서 ____을 씹도록 한 것임.



작가
코끼리는 땅으로 고개를 숙이면 ____가 먼저 닿아 씹는 것에 방해가 됨.



사람들
코끼리에게 ____를 준 것은 코가 있기 때문.



작가
차라리 ____를 없애고 코를 짧게 하는 것이 나옴.

5. 꼬끼리를 본 경험을 통한 깨달음

당시 사회의 보편적인 생각
하늘의 이치를 _____하여 인간의 행동 양식과 자연 현상 모두를 하늘의 _____와 _____시킴.



열하 행궁 서쪽에서 꼬끼리를 봄.
움직이는 꼬끼리를 처음 보고 _____과 _____ _____ 느낌.
꼬끼리의 눈에 대한 새로운 인식
세상 사람들은 꼬끼리의 눈을 _____한 웃음으로 인식하는 반면 글쓴이는 꼬끼리의 눈에서 _____성품이 나온다고 생각함.
꼬끼리가 범을 죽인 일이 발생함.
꼬끼리가 코를 휘둘러 범을 죽인 것은 _____일에 불과함.



깨달음
모든 것을 하늘의 _____와 _____시켜 이해하는 당시의 _____시각을 경계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만물을 바라봐야 한다는 점을 깨달음.

6. 작가가 성찰한 것과 의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_____한 것 : 하늘의 _____를 _____하여 모든 것을 하늘의 이치와 _____ 당대의 획일적인 사고방식에 대해 성찰하고 있다. • _____ : 작가의 _____은 당대의 지배적 통념에서 벗어나는 _____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7. 당대 사람들의 생각과 작가의 반박

당대 사람들의 생각	작가의 반박
_____을 숨씨 좋은 장인으로 보고서, 그가 모든 것을 만들었다고 생각함.	_____ 흙비 자욱한 속에서 _____이 어떤 것을 만들어 냈는지 알 수 없음.
하늘이 _____을 준 것은 고개를 숙여 _____을 씹도록 한 것임.	_____는 땅으로 고개를 숙이면 _____가 먼저 달아 씹는 것에 방해가 되므로, 사람들이 말하는 _____의 _____는 _____에게 적용되지 않음.

8. 고정된 시각으로 대상을 판단하였을 때의 오류

<p>꼬끼리는 크고 사나운 _____보다 작고 _____ 쥐를 더 꺼려 함. → 쥐가 범보다 무서운 존재라는 것은 일반적인 _____에서의 이치와 맞지 않음. → _____관점으로 대상이나 현상을 인식하는 것은 _____.</p>
--

9. '하물며 천하 사물이 꼬끼리보다도 만 배나 더 한 것임에랴.'의 의미

<p>'눈에 보이는 _____에 대해서도 그 _____를 모르는 것이 있는데, 천하 _____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겠는가'라는 말로, 천하 사물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수히 많다는 의미이다.</p>
--

10. 코끼리 코에 대한 일화를 제시한 이유

우연히 일어난, 코끼리 코에 관한 ___를 제시함. → 이후 앞의 ___에 관한 ___를 시작함.

11. '맷돌'이 비유하고 있는 것

'맷돌의 ___'은 ___을 만들어 내는 '___의 작용'을 비유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맷돌'의 원 관념은 '___'이라고 할 수 있다.

서지정보

저자 이재균

발행처 나무아카데미

isbn 979-11-377-2293-4

제본형태 hwp pdf 파일

발행일 2022.01.24

가격 1500원

